

시리아어 성경 페쉬타

-구약 성경-

이수민*

시리아어 성경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언은 사르데스의 멜리톤(170년 경)의 창세기 22:13의 주해와 오리게네스(185-254년 경)의 헬사플라에서 히브리어나 시리아어 성경(이문들)을 ὁ Ἑβραῖος나 ὁ Σύρος라고 부른 것이다. 이것들이 히브리 성경이나 시리아어 페쉬타였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더욱이 2세기 말에 에뻬사의 바르다이산(154-222년)이 구약 성경 페쉬타를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¹⁾

시리아어 성경을 처음으로 페쉬타라고 부른 사람은 서부 시리아(단성론파) 학자 모세 바르-케파(기원 후 813-903년 경)이다. 그는 “우리말 시리아어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성경 이본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읽고 있는 페쉬타로 히브리어에서 시리아어로 번역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어에서 번역되었다.”고 말한다.

페쉬타의 어원 ‘파샤트’는 ‘파내다’, ‘곧다’, ‘단순하다’ 등의 뜻을 지니는데 페쉬타는 그의 수동형 과거분사로 ‘파낸’, ‘곧은’, ‘단순한’의 뜻과 동시에 ‘보편적인’, ‘공변된’ 등의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페쉬타”라고 하는 성경명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

* 한남성서연구소 선임 연구원, 동방 그리스도교

1) Rubens Duval, *La littérature syriaque*, 2nd ed. (Amsterdam: Philo Press, 1970; org. ed. Paris, 1907), 26-28.

서 따왔다고 생각한다. 서부 시리아 교부이며 대주교였던 바르-헤브레우스(1225/6-1286년)는 페쉬타가 ‘꾸민 언어’를 배격한다고 진술하면서 ‘단순한 번역’으로 이해할 것을 권장하였다. 9세기에 시리아 성경을 처음으로 ‘페쉬타’라고 불렀는데 이미 615-617년에 오리게네스의 그리스어 “헥사프라”에서 번역된 성경을 시리아어 “헥사플라”라고 부른 후였다. 그래서 듀발(Rubens Duval)은 모세 바르-케파가 페쉬타와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성경을 대립시키는 것을 보아, τὰ ἑξάπλα(풀어 쓴)의 반대되는 의미로 τὰ ἀπλά(단순한) 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²⁾

1. 페쉬타와 성경 목록

5세기에 시리아 교회가 동서부로³⁾ 갈라지기까지 페쉬타의 원문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교회가 보존한 원문에는 주목할 만한 이문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이덴(Leiden)에서 수록한 무수한 페쉬타 필사본 세목을 보면⁴⁾ 동방 시리아 필사본들은 성경을 다섯 부분으로 분리하는 점이 특이하다.⁵⁾

2) Rubens Duval, *La Littérature syriaque*, 29.

3) 5세기 그리스도론 분쟁으로 동부의 이성론(네스토리우스)은 서부의 단성론파에서 갈라져 페르시아의 수도 셀레우키아크테시폰에 독립된 자치 교회를 세운다.

4) The Peshitta Institute Leiden University, ed., *List of Old Testament Peshitta Manuscripts* (Leiden: E. J. Brill, 1961); VT 12 (1962)와 20 (1970).

5) 1646년에 파리에서 출판된 *Polyglotta*, 1657년에 London에서 출판된 월튼(Walton)의 *Polyglotta*, 1823년에 사무엘 리(Samuel Lee)가 대영성서공회의 위탁을 받아 출판한 시리아어 신, 구약성경, 1852년에 우르미아의 미국 장로교 선교회에서 출판한 시리아어 구약성경, 1887-1891년 모술의 도미니코수회에서 출판한 페쉬타 성경들은 동부 시리아 필사본들에 의존하지만, 성경책들의 차서를 서방 성경에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다섯 분류를 찾아볼 수 없다.

(1) ‘*Ourayta*’라 부르며 *Torab*를 뜻한다. 다섯 권의 모세 오경으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다.

(2) ‘*Bet mawtwé*’는 열권으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⁶⁾.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상, 하권, 열왕기 상, 하권, 잠언(살로몬의 지혜), 집회서, 코헬렛, 아가, 룻기와 욥기이다.

(3) ‘*Nbyé*’(예언서들)은 여섯(일곱)권으로, 그 순서는 이사야서, 열두 예언서, 예레미아서, 애가,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벨과 뱀(다니 14장).

(4) ‘*Mazmré ddavid*’, 곧 시편이다.

(5) ‘*Mqawyé*’ 나머지 (책)들로, I-IV 마카베오기, 역대기 상, 하권, 에즈라느헤미아, 지혜서, 바룩서 목시록, 여인들의 책 [에스테르기, 수산나(다니 13장), 유딧기, 룻기는 보통 *Bet mawtwé*에 속한다], 그리고 3-4 에스라기, 토빗기, 마나세의 기도, 솔로몬의 송가, 솔로몬의 시편, 송가(시편 다음의), 외경 시편들, 바룩의 서한 등이다.

시리아 교부들이 구약 성경을 22권이라고 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1)부터 (4)까지 헤아린 숫자이다. 동부 시리아 주교 이쇼다드 더 메르브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경처럼 역대기를 포함하면 스물 두 권이 된다고 한다.⁷⁾ 그리고 서부 시리아의 바르 헤브레우스의 『성경 문답집』 (*Scolion*)에도 이 역대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에프렐

6) ‘*Bet mawtwé*’ 보통 ‘*session*’으로 번역하지, 전문가들은 서로 달리 ‘(공부하는 개학) 기간’, 판관기를 중심으로 삼는 ‘재판-판결’, ‘(이스라엘의)정착’으로 이해하려 한다. Micheline Albert, “les ‘*Bet Mawtwé* nestorian,” Michel Tardieu, ed., *La formation des canons scripturaires* (Paris: Cerf, 1993), 154-168.

7) J. M. Vosté-C., Van den Eynde, *Commentaire d’Isbo’dad de Merv sur l’Ancien Testament, I. Genèse*, CSCO 126/ Syr. 67 (Louvain: Peeters, 1950), 3; 프랑스어 번역: C. Van den Eynde, *Commentaire d’ Isbo’dad de Merv sur l’Ancien Testament: I. Genès*, CSCO 156/ Syr. 75 (Louvain: Peeters, 1955), 4.

도 역대기는 인용하지 않았다.⁸⁾

다섯째 구분 (5)에 속하는 책들 가운데 역대기, 에즈라-느헤미아와 에스텔서가 초대 시리아 교회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직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책들은 대부분 제 2경전에 속하며, 전문가들은 개별의 책들의 본문을 연구하고 번역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면서 이것들이 그리스어에서 번역되었다고 주장한다. 6-7세기에 쓰인 가장 오래된 성경 필사본 완본으로 밀라노의 코텍스 암브로시아누스(Codex Ambrosianus)를 들 수 있는데, 순서는 간혹 다르지만 (5)에 속하는 모든 경전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들이 원 정경(protoconon)에 속했다고 본다. 이는 4세기 마르에프렘과 아프라하트의 작품 속에서 이 제 2경전들의 인용문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2. 페쉬타 본문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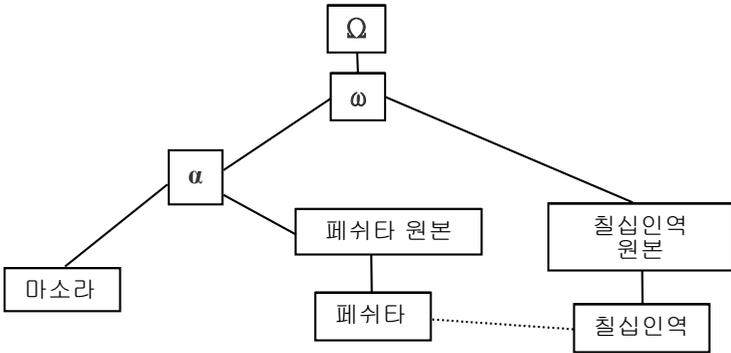
지금까지 페쉬타의 기원에 관한 연구들은 히브리어 마소라(MT) 본문과의 관계, 그리스어 칠십인역(LXX)과의 관계, 아람어 타르굼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논문과 단행본들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서 이 세 가지 연구 분야를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페쉬타의 창세기 1:1을 시작하는 첫 어휘가 히브리어 **אשר**라는 사실에서 페쉬타가 히브리어 성경에 기반을 둔다고 이해해도

8) Leo Haefeli, *Die Peshitta des Alten Testaments mit Rücksicht auf ihre Textkritische Bearbeitung und Herausgabe* (Münster: Verlag der aschendorffschen Verlagsbuchhandlung, 1927) 27-30; S. Fränkel, "Syrishce Übersetzung zu den Büchern der Chronik," *Jahrbuch für protest. Theol.*, 5 (1879), 508이하 720이하를 자세히 소개한다. M.P. Weitzman, *The Syriac Version of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15. 아프라하트가 역대기에 익숙했다고 한다.

무리가 아닐 것이다. 히브리어 MT의 표준화는 아키바 랍비(135년 사망)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히에로니무스가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라틴어 성경(Vulgata)을 보면, 4세기에도 아직 표준화 되지 않은 히브리어 성경 사본들이 유통된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페쉬타는 일반적으로 MT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바이츠만(M.P. Weitzman)은 서로 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무수한 어휘와 구절들을 LXX와 비교하면서, 히브리어 원본이 LXX과 같이 MT 이전의 필사본들에 의존한다는 가설을 내세웠는데, 아래의 MT, LXX와 페쉬타의 관계 도표를 참고하라. 9)

<도표 1> MT, LXX와 페쉬타의 관계 도표¹⁰⁾



9) M.P. Weitzman, *The Syriac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15은 간혹 어휘나 구절이 서로 다른 경우들을 착안하여, 첫째, 번역자가 MT 본문이 아닌 다른 원본(Vorlage)을 사용했을 가능성과, 둘째, 번역자가 고의적으로나 오류로 뜻을 변경했을 가능성과, 셋째, 일찍이 번역된 시리아어 성경 구절이 다르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이 지나친 경우가 허다하다.

10) Ω 는 ω의 히브리어 원본을 가정한다. ω 는 MT, LXX, 페쉬타 셋이 이문을 공유하는 히브리어 원본을 가정한다. α 는 MT와 페쉬타가 이문을 공유하며 LXX 원본과는 다른 히브리어 원본을 가정한다.

(나) 칠십인역과의 관계: 학자들의 독자적 연구를 종합해 보면, 페쉬타 원문에서 MT 보다 LXX에 가까운 구절들을 자주 보이는 경전은 예제키엘서, 열두 예언서, 잠언, 아가, 코헬렛이며,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경전은 창세기, 여호수아기, 이사야서, 예레미아서, 시편, 에스테르기이다. 사무엘기, 열왕기, 욥기, 애가, 역대기에는 이러한 병행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번역자가 히브리어, 아람어뿐만 아니라 그리스어까지 잘 아는 사람으로 히브리 성경, 타르굼, LXX를 동시에 참고했다는 의견도 있다. 팔레스티나와 시리아 지역의 유다인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LXX를 경멸하였으므로 200년 경 에멧사가 안티오키아(세라피온)의 관할에 속한 3세기부터, 오리게네스(185-254년) 이후에,¹¹⁾ 헬라화된 시리아인들이 LXX를 바탕으로 한 페쉬타를 재수정했을 법하다. (5)에 속하는 제 2경전들이 그리스어의 영향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아 이 때 페쉬타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4세기에는 마르 에프렘과 아프라하트의 작품 속에서 이 제 2경전들의 인용들이 발견된다.

(다) 타르굼과의 관계: 페쉬타와 타르굼의 평행 구절들은 특히 모세 오경에 가장 많이 발견된다¹²⁾. 마오리(Y. Maori)의 학위 논문은 펠레스(J. Perles)의 의견을 토대로, 히브리어 원문에서 시리아 성경을 번역한 페쉬타 번역자들이 유대교 전승을 잘 알고 있어서 번역하면서 군데군데 전승들을 첨가하거나 삽입했다고 주장한다.¹³⁾ 물론 페쉬타는 동북 아람어-시리아어 성경이므로 바빌로니아 타르굼 옹켈로스와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오늘 대부분

11) 오리게네스의 “Ἐξῆπλᾶ”가 명세한 “ὁ Σύρος”를 따르는 번역들이 페쉬타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2)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인 학자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J. Perles, *Meletemata Peschittioniana* (Breslau, 1894).

13) Y. Maori, *The Peshitta Version of the Pentateuch and Early Jewish Exegesi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55), 298(히브리어).

학자들은 타르굼 웅켈로스도 팔레스티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므로, 페쉬타에서 발견되는 주해적 요소들이 타르굼 웅켈로스의 원본(조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움스타르크(A. Baumstark)나 카홀레(P. Kahle) 같은 대가들의 연구 성과로 페쉬타가 유대인들의 타르굼에서 번역되었고 그 뒤에 히브리 성경을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는 의견은 오늘날 설득력을 잃었다. 페쉬타는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하였지만 때로는 타르굼 언어와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번역자가 특정한 타르굼 완본을 곁에 둔 것은 아니며, 타르굼에 가까운 성경 필사본이 있었다고 전제하지도 않는다. 다만, 히브리어 성경에 수록된 많은 어렵고 모호한 구절들을 LXX과 절충하면서 쉽고 평탄하게 번역했을 뿐이다.

3. 페쉬타를 번역한 장소: 에돏사 - 아디아베네

페쉬타가 번역된 곳이 에돏사였다는 의견은 두루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는 그 도시가 지중해와 극동, 인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위에 놓인 중심 도시로 동쪽에 있는 니시비스나 아디아베네, 그리고 모든 유대 공동체들과 정신적 유대를 이어주었기 때문이다.¹⁴⁾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페쉬타 번역자들의 그리스어 지식이 뛰어났던 점이다. 그러나 머레이(R. Murray)가 아디아베네를 에돏사보다 앞세우는 이유는 에돏사가 복잡한 상업 도시인데다 그곳에서 모든 잡다한 학설들(바르테사네스, 마르치온 등)이 전성기를 이루었으므로 성경 번역에 몰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¹⁵⁾

카홀레가 아디아베네를 페쉬타 번역지로 선택한 이유는 페쉬타가

14) J. B. Segal, *Edessa, the Blessed C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4.

15) R. Murray, *Symbols of Church and King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4 이하.

팔레스티나 타르굼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 역사적 동기는 다음과 같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기원 후 41-54년) 때 아디아베네 왕국이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서방 아람어 성경(타르굼)을 가져다 번역했다고 가정하면, 페쉬타를 번역한 곳이 아디아베네라는 것이다.¹⁶⁾ 아디아베네는 티그리스 강에 합류되는 큰 자브 강과 작은 자브 강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다. 아디아베네의 왕 이자트(기원 후 36-60년)는 여왕이었던 어머니 헬레나(기원 후 5-36년)의 권유로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 곳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 유대교 문헌(요세푸스 『유대고대사』 20, 44-45와 미드라쉬 『창세기 랍바』 46, 10)에서 아디아베네의 왕 이자트가 모세의 율법을 읽고 할례를 받았다는 기사를 통해 그곳 방언인 아람어로 씌어진 성경이 있었다고 유추한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 미루어, 이 성경이 아디아베네의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을 위해서 번역된 것이라면, 그 작업은 이미 1세기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필레스는 벌써 두 증거 문헌을 제시하였다. 먼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자트 왕은 자신의 아들 다섯을 팔레스티나에 보내 유대인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했다(『유대고대사』 20, 3. 4.). 둘째, 모세 바르 케파가 전하는 에렛사의 야곱(700년경)의 진술에 따르면, 사도 앗다이와 에렛사의 왕 아브가르가 번역자들을 팔레스티나에 보내어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¹⁷⁾ 그러나 바이츠만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물론 페쉬타가 서부 아람어 요소를 내포하고 서부 아람어 유대인들의 타르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팔레스티나와 직접

16) P. E. Kahle, *The Cairo Geniz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9³), 265-283.

17) L. Schlimme, "Der Hexaemeronkommentar des Moses bar Kepha: Einleitung," *Übersetzung und Untersuchungen I* (Wiesbaden, 1977), 172.

연관을 가진 동부 아람어 중심지로 아디아베네가 가장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페쉬타에서 팔레스티나 아람어 전용어를 증명할 요소는 찾을 수 없다.¹⁸⁾

4. 페쉬타는 언제 번역되었는가?

학자들은 오랫동안 마소라 본문에 나타나는 명사나 관형사형의 ‘아람’ (ܐܪܡܝܐ ܐܪܡܝܐ)이라는 고유 명사가 페쉬타의 많은 성경 책에서 전부가 ‘에돔’(ܐܕܘܡܐ ܐܕܘܡܐ)으로 바뀌었거나 삭제된 것을 목격해왔다. 사실 ‘아람’은 아람 백성의 시조명(始祖名)이다(창세 10:22). 또한 아람어를 사용한 시리아앗시리아 지역을 뜻하기도 하는데, 선조들의 고향인 유프라테스강 동쪽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다. 처음에 군데군데 나타나는 이문들(variantes)을 보고 페쉬타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람(ܐܪܡܐ)과 에돔(ܐܕܘܡܐ-ܐܕܘܡܐ)의 ‘레쉬’와 ‘달렛’을 혼동한 것으로 생각하였다.¹⁹⁾ 그러나 오늘날의 전문가들은 페쉬타 본문 전체에서 선조들의 고향(창세기)과 아람 백성의 시조들이 살던 곳을 제외한 모든 ‘아람’이 ‘에돔’으로 바뀐 사실을 목격하고 또 다른 원인을 추리하게 되었다.

로마군이 티그리스 강까지, 전 앗시리아 지방을 점령한 것은 117년 트라야누스 황제 때였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창세 25:24) 에사오의 땅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 세계를 점령한 로마 제국은 불경스런 에사오의 땅과 같았다. 더욱이 랍비들의 성경 주해를 보면, 민수기 24:17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가 실현되어 메시아가 도래할 점성학적 시간을 계산하여 시작한 바르-코크바 반란

18) M.P. Weitzman, *The Syriac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126.

19) R. Payne-Smith, *Thesaurus Syriacus I-III*, 2nd ed. (Hildesheim: Georg Olms, 1981; org. ed. Oxford: Clarendon, 1987-1901), col. 35.

(132-135년)이 수포로 돌아가자 랍비들은 에돔, 세이르, 유브라테스라는 지명을 모두 ‘로마 제국’으로 해석했다. 이런 성경 해석은 랍비들의 문헌뿐만 아니라 4세기 아프라하트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²⁰⁾ 그러나 적어도 모세 오경에서는 ‘아람’이 ‘에돔’으로 바뀐 흔적을 볼 수 없으므로 2세기 연대 추정에서는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디아베네의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을 위해서 이자트 왕이 아들 다섯을 팔레스티나에 보내 유대인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했거나, 도마 사도의 제자이며 70인 사도의 한사람인 앗다이와 에돏사의 왕 아브가르가 번역자들을 팔레스티나에 보내어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면, 그 작업은 이미 1세기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5. 페쉬타 기원에 관한 그리스도교 전승

시리아의 초대 교부 아프라하트(260/275-345년 경)와 마르 에프렐렘(306-373년)은 페쉬타의 유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페쉬타 기원에 관한 언급은 맨 처음 569년 서부 시리아 교회의 『수사학자 차명-자카리아스의 교회사』에 나타난다. 그는 키프로스의 주교 에피파니우스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살마네셀 왕이 유배온 사제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시리아어 성경 창세기를 쓰게 하였는데, 그는 바벨론을 떠나 사마리아 백성에게로 보내졌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 정착하였다.”고 하였다. 앗시리아의 왕이 유배 온 사제 하나를 이스라엘에 보내어 토라를 가르치게 했다는 전설은 2열왕기 17:27 이하에 근거한 듯하다. 동부 시리아 전승에서는 이 사제를 앗시아라고 부른다.

20) 이에 대한 더 광범위한 토론은 다음을 보라. M.P. Weitzman, *The Syriac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62-67.

그 이후에 기록된 서부 시리아 교회의 전승으로는, 모세 바르 케 파가 전하는 에뎃사의 야굽(700년 경)의 진술인데, “사도 아다이와 신앙인 아브가르 왕이 사람을 예루살렘과 팔레스티나 지방으로 보내 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시리아어로 번역하게 하였다.”는 전승이 지배적이다. 동부 시리아 교회의 카스카르(이란)의 주교 테오도르 바르-코니(8세기 말)는 『성경 교리 문답집』(*Scholion*)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올 때까지 생존한 히람 때 (시리아어)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한다. 그는 다윗을 사랑하여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고 싶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시리아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한다. 그들은 모든 백성에게 가서 모든 나라 말로 강론하여 인류를 개선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²¹⁾

호라산 북쪽에 위치한 메르브의 이쇼다드 주교는 9세기 중엽에 동부 시리아 교회의 성경 주석가인데 그는 자신의 『창세기 주해』 입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법전(모세 오경), 여호수아기, 판관기, 룯기, 사무엘 상·하, 다윗(시편), 잠언, 코헬렛, 아가와 욥기는 솔로몬 시대에 티로스의 왕 히람의 청으로 번역되었다. 그 밖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에뎃사의 왕 아브가르 시대에 아다이와 그외의 사도들의 노력으로 번역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로 보낸 아시아라는 한 사제가 (시리아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말한다.²²⁾

21) A. Scher, *Theodorus bar Koni, Liber Scholiorum I*, CSCO 55/Syr. 19 (Louvain: Peeters, 1910), 280.

22) 각주 7 참고.

이 이야기는 단성론과 바르 헤브레우스(1225/6-1286년)의 『성경 교리 문답집』(*Scholion*)에도 나와 있다. 동부 시리아 교회의 또 다른 전승으로 10세기에 편집된 『향기의 정원』(*Gannat Bussame*)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백성들의 전통에 따르면, 마르코(복음사가)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시리아어로 번역하여 우리 주님의 형제 야곱과 사도들에게 바쳤다. 그들은 그 (번역)들을 인가하고 시리아 백성에게 유포하였다. 그리고 그 (마르코)는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복음서(번역)에 열중하였다.

이 기록은 아랍 그리스도인 작가 타바리가 855년 경에 쓴 저서에도 나타난다.

6. 그리스도교 전승들의 평가

솔로몬 시대에 페쉬타가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페쉬타에 목적을 표시하는 전치사 ‘야트’(ܐܬ)가 열아홉 번(창세기에서 두 번, 역대기에서 한 번, 아가에서 다섯 번, 전도서에서 열한 번) 사용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기원 전 800년의 자키르 비문에 이 전치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는 고대의 어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쉬타에서 그 외의 모든 목적격은 ‘라메드’(ܠ)로 표현되었고 어법의 변천 경위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²³⁾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전설에서 티로스(레바논)의 왕 히람은 솔로몬 시대에 왕위에 올랐고 네부카드네사르(히람의 사생아)에게 피살되기까지 500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히람은 솔로몬이 제 1성전을 지을 때 헤르몬에서 생산된 목재를 제공했다고 한

23) P. Weitzman, *The Syriac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122-123을 참고.

다. 이런 전설이 확장되어 히람이 이스라엘 성경을 사랑하여 시리아어로 번역하게 했다고 전해진 것 같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에뎃사 왕 아브가르에 대한 전설과 그가 예수님께 보낸 편지는 동방 그리스도교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유포되었다. 아브가르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치유되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전설은 유다교로 개종한 아디아베네의 이자트 왕 기사와 병행을 이룬다. 아다이와 다른 사도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전 이란 지역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한 사실은 『아다이 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복음사가 마르코가 페쉬타를 번역했다는 전설은 칠십인역의 전승과 병행되는 것으로 본다. 『아리스테아의 편지』에 따르면 칠십인역 번역자들은 예루살렘 학자들과 상의하여 성경을 번역했다고 한다. 파피아스(기원 후 140년 경)가 언급한, 마르코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했다는 기사를 후대의 교부들이 더 확장하여 칠십인역의 전승과 병행시킨 것이다.

7. 페쉬타를 번역한 사람은 누구인가?

초대 교회가 칠십인역에 권위를 부여하였음에도 첫째, 페쉬타가 히브리 성경을 원본으로 삼았다는 사실과 둘째, 페쉬타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적 성경 주해(Perles)와 랍비의 전승들(Maori)로 인해서 이 번역이 유대인들의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더 인정한다. 그러나 오리게네스와 히에로니무스의 작품 속에서도 유다적-랍비들의 전승이 매우 많으므로 이 번역이 반드시 유대인들의 작업이라고만 주장할 수도 없다. 히브리어 성경과 비교할 때 이문이 가장 많은 책은 역대기 상하권이다. 그 이문들 속에서 번역자가 유대인임이 잘 드러난다. 여기에는 바이트만이 이전의 모든 연구를 종합한 예문들 가운데서 중요

한 몇 가지만 선택하여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²⁴⁾

(1)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유배당한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처럼 흡족하게 행각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같이 슬퍼한다(2역대 6:18).

(2) 페쉬타(2역대 7:10; 30장; 35장에서)는 과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축제에 대한 역서 관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보아 율법에는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준다.

(3) 역대기의 많은 구절, 특히 1역대 16:42에서, 성전에서 사용한 악기를 “기도”, “말소리”와 “입”으로 대치한다. 이러한 전승은 제 2성전 파괴에서 비롯하지만, 악기를 단죄한 전승은 3세기 초에도 철저하게 드러난다.²⁵⁾

(4) 2역대기 14:3에서는 “토라와 계명의 준수”를 기도로, 1역대기 29장에서는 다윗의 기도를 유대인들의 “카디쉬” 기도로 대치한다. 1역대기 15:21에서는 초대 교회의 성무일과 시간(*tercia, sexta, nona*)을 언급한다. 1역대기 23:5; 2역대기 31:10에서는 MT의 뜻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을 앞세우고, 1역대기 8:40에서는 “자손들을 번식한다.”를 “자손들을 가르친다.”로 대치한다. 이들을 전체로 보아, “성전의 제헌”보다 “기도, 자선, 공부”를 앞세우는 것을 알 수 있다.

(5) 1역대기 29:17에서 “신앙”을 앞세운다. 랍비들은 신앙도 중요하지만 토라의 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2역대기 31:18에서 주님께서 신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위에 현존하시고 이스라엘은 신앙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고 한다.

24) M.P. Weitzman, *The Syriac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206-244.

24) 참조하라. Su-Min Ri, *Commentaire de la Cavernde des Tresors, Etude sur l'histoire du texte ed ses sources*, CSCO 581/Sub. 103 (Louvain, 2000), 227-278.

위에서 역대기를 중심으로 MT 본문과 다른 어휘와 구절들을 찾아 보았으나 그 밖의 성경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1) 시편 37:7과 71:14 에서 “기다리다”를; 에즈라 6:21에서 “찾다”를; 에즈라 10:14에서 “정해진 (시간)”을; 느헤미아 9:17에서 “사랑”을; 창세기 30:8에서 “겨루다”를, 탈출기 38:8과 1사무엘 2:22에서 “봉사하다”를 항상 “기도하다”로 대치한다. 집회서에서 “제헌”을 “기도”나 “하나님께 복종”으로 대치하고 제헌에 관한 율법을 “길”, “말씀”으로 대치하거나 삭제해 버린다. 페쉬타는 일반적으로 레위 법과 제헌을 소홀히 여긴다.

(2) “그것은 성전이다.”(예레 7:4)라는 표현을 “너희는 하느님의 성전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교나 콥란 문헌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3) 시편 17:15에서 “그대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 안에 있는 신앙”으로, 잠언 19:8에서 “지성-이해”를, 예레미아 33:6, 시편 26:3에서 “충성”을 “신앙”으로 옮긴다. 시편 48:15; 49:9; 욥기 30:23, 42:6에서 영원한 삶과 부활을 갈망하는 표현들로 바꾼다. 잠언 2:7에서 “방패”, 8:21에서 “재산”; 10:24; 11:3; 13:12에서 “소망”을 “희망”(ܦܘܠܘܬܐ)으로 바꾸는 것이 특이하다. “ܦܘܠܘܬܐ”는 시리아에서 “복음”과 “선포”를 뜻한다.

(4) 잠언 22:7에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지배할 것이라 하며, 잠언 14:23에서는 부유한 자들을 규탄한다. 페쉬타 코헬 10:19; 1역대기 26:16, 코헬 37:4에서 사라질 “세상의 부귀”를 강조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콥란(IQH 10:22-30)문헌과, 예녹서 94:8, 마태 5:3에서도 읽을 수 있으며, 페쉬타 코헬렛이 유다-그리스도 공동체 에비오님들의 번역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²⁶⁾

페쉬타 역대기 번역자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함께 하는 유대인으

로 표현된 것과 같이 다른 성경에서도 그러하다.

(1) 에즈라 9:14-15에서 MT는 백성들의 혼혈 결혼을 슬퍼하지만, 페쉬타는 이를 통곡하며 용서와 자비를 구한다. 다니엘 9:16에서는 LXX과 같이 자신들(유다 백성)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흠어져 천하게 살게 되었다고 자백한다.

(2) 시편 30:4에서 “믿음 깊은 자들아”(יִתְּבֹנִים)를 “선택된 자들아”로, 31:21에서 “선택된 자들을 선택하신 주님”으로, 32:6에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선택된 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번역자들의 ‘선택된 자’의 정체인 듯하다.

(3) 유다 백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이교 백성들에 대한 찬양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이사야 52:15에서 “(그)는 만 백성을 흠뜨리고”를 “그는 만 백성을 정결케 하고”로, 시편 35:18에서 “거대한 백성(단수) 안에서 그대를 찬양하리.”를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을 노래하리.”로, 시편 107:32에서 “백성(단수)의 모임에서”를 “백성들의 교회에서”로 번역한다. 백성의 복수는 이교 백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페쉬타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증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절들에서 볼 수 있다. 이 증거들은 이미 오랜 전에 블럭(J. Block)이 지적한 구절들이다.²⁷⁾

(1) 이사야 7:14에서 “소녀”를 “처녀”로 번역하고, 이사야 15:9-16:1에서 “어린 양”을 “아들”로 번역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한 것은 LXX의 영향일 수도 있다.

(2) 다니엘 9:24에서 “더 없이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어”를 “더

26) M. M. Winter, “The Origins of Ben Sira in Syriac,” *VT* 27 (1977), 245-249.

27) J. Bloch, “The Quthorship of the Peshitta,” *AJSL* 35 (1918/19), 215-222.

없이 거룩한 메시아에게”로 번역하며, 9:26에서 “기름부음 받은 이가 잘려나가”를 페쉬타는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리니”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교적 해석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리스도교만의 고유한 사상이 아니다. 성결법과 유혈적 제헌, 관례적 서식을 반대하는 사상은 디아스포라 유다 공동체에 만연해 있었다. 유다 백성에 관한 비판적(부정적) 사상은 이미 예언자들에게 뿌리 깊었다. 자아 비판적 유다 종교심이다. 그러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실패한 바르-코크바의 반란(기원 후 132-134년) 이후 유대인들은 종교 사상의 급변을 체험하게 된다.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바르 코크바를 이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난 ‘별의 아들’로 보고 발람의 예언(민수 24:17 참조)이 이루어져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폭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실망한 유대인들은 발람의 예언과 점성학적 메시아 사상을 배격하고 에돔이 회개하리라는 희망마저 포기한다. 더 이상 성전의 재건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 조류에 합류하게 되었으니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 성경 번역이 더욱 시급했을 것이다. 이미 1세기에 번역되기 시작한 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2세기부터 번역된 부분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시리아어 성경은 초대 유다-그리스도교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어>

페쉬타, 마소라 본문, 칠십인역, 타르굼, 에돔사, 아디아베네, 유대교, 동방 그리스도교

<Key Words>

Peshitta, MT, LXX, Targum, Edessa, Adiabene, Judaism, Eastern Christianity

참고문헌

- Albert, Micheline, “les ‘Bet Mawtbe’ Nestorian,” Michel Tardieu, ed., *La formation des canons scripturaires*, Paris: Cerf, 1993.
- Dirksen, P.B.,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Peshitta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J. Brill, 1989.
- Duval, Rubens, *La littérature syriaque*, 2nd ed., Amsterdam: Philo Press, 1970; Paris: org. ed. 1907.
- Haefeli, Leo, *Die Peshitta des Alten Testaments mit Rücksicht auf ihre Textkritische Bearbeitung und Herausgabe*, Münster: Verlag der aschendorffschen Verlagsbuchhandlung, 1927.
- Kahle, P.E., *The Cairo Geniz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9².
- Maori, Y., *The Peshitta Version of the Pentateuch and Early Jewish Exegesi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55 (히브리어).
- Murray, R., *Symbols of Church and King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Payne-Smith, R., *Thesaurus Syriacus I-III*, Hildesheim: Georgolms, 1981; org. ed. Oxford: Clarendon, 1879-1901.
- Ri, Su-Min, *Commentaire de la Caverne des Trésors, Etude sur l'histoire du texte et de ses sources*, CSCO 581/Sub. 103, Louvain: Peeters, 2000.
- Segal, J. B., *Edessa, the Blessed C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The Peshitta Institute Leiden University, ed., *List of Old Testament Peshitta Manuscripts*, Leiden: E. J. Brill, 1961.
- Vosté-C., J. M., Van den Eynde (ed.), *Commentaire d'Isbo'dad de Merv sur l'Ancien Testament*, I. Genèse, CSCO 126/Syr. 67, Louvain: Peeters, 1950; 프랑스어 번역: C. Van den Eynde, *Commentaire d'Isbo'dad de Merv sur l'Ancien Testament: I. Genèse*, CSCO 156/Syr. 75, Louvain: Peeters, 1955.
- Weitzman, M. P., *The Syriac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초록>

시리아어 성경 페쉬타

-구약 성경-

이수민

(한남성서연구소 선임 연구원, 동방 그리스도교)

동방 그리스도교는 세기 초에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한 시리아어 성경을 보존하였다. 시리아어는 에뎃사(오늘날 터키의 동남쪽에 위치한 우르파)를 중심으로 오스로에 지방에서 사용한 아람어 방언이다. 이 언어를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가 에뎃사에서 시작하여 메소포타미아와 이란 고원지대에 이르는 지역에 확산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통용어가 되었다. 시리아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하였지만, 사실 칠십인역이라 부르는 그리스어 성경이 더 일찍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되었다. 칠십인역은 『아리스테아의 편지』나 『탈무드』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인들이 작업해 놓고도 히브리어만을 거룩한 언어라 믿는 유다인들은 정작 이를 배척하였다. 유다인들과 달리 초대 그리스도 교회는 칠십인역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시리아어 성경은 유다인들이나 유다-그리스도인들의 작업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다교 문헌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진술도 없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기원, 곧 번역자들의 정신적 세계와 언제 어디에서 번역되었는지 여전히 흥미로운 의문으로 남는다. 지난 백여 년 동안 발표된 마소라 본문, 칠십인역과 타르쿰들과의 단편적 비교 연구는 우리에게 더 세밀한 총괄적 연구 과제를 제시해 주는 듯하다. 아직 미지 속에 있는 동방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유다교의 공생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yriac Bible Peshitta

Dr. Su-Min Ri

(Hannim Biblical Institute)

The eastern churches have preserved the Syriac Bible Peshitta translated from Hebrew during the first century. The Syriac language was the Aramaic dialect of Edessa (today's Urfa, in south-east Turkey) and of its province Osrhoene and it was the medium by which Christianity spread from Edessa over to Mesopotamia and the Iranian plateau. The Syriac Bible, as well as Greek Bible called Septuagint, was translated in the earlier days from the Hebrew. This Greek Bible attested in the Letter of Aristeas and in the Talmud was translated by the Jews, but Christians have adopted it as the official Bible. The Peshitta was never mentioned in Jewish sources, but seemed to be translated by Jews or Judeo-Christians. Therefore the questions on its origin, i. e. the spiritual circle, date and place of translation, are always interesting. The partial researche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Masoretic text, Septuaginta and the various Targums which were carried out over the last centuries ask for more accurate and comprehensive works. It might be useful to consider also the symbiosis that existed between Judaism and the beginning of Eastern Christianity.